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

(우110-370)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 TEL 02-745-7942 (FAX 02-744-7916)
E-Mail lgbtstu@gmail.com 담당: 이종걸

문서번호 12-1-1

수신 민주통합당 당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님들께

참조 민주통합당 당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캠프 홍보 담당자 및 정책 담당자

일자 2012. 1. 7

제목 차별 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민주통합당 당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의견 공개질의

1. 귀 후보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발의 및 제정 취지와 달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의 삭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소수자 단체, 인권단체, 개별 성소수자 및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인 연대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언니네트워킹,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하는 단체들, 기타 개인 활동가들이 본 연대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후 보수층의 동성애 혐오 공격이 강화되고 '동성애 및 임신 출산'을 빌미로 차별금지 조항이 원안에서 후퇴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보수층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특히 '동성애 및 임신 출산'을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포된 경기도·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적 지향과 임신 출산을 차별 금지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 연대체는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위한 활동들을 펼쳤으며, 작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통과되었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시금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청소년 활동가,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노력하여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금 훼손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올바르게 제정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입법 및 행정에서 야당의 위상을 지닌 민주통합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제정과 정착은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이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증진과 차별 및 폭력 종식,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하여 어떠한 철학,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한 전북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전북도교육청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의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및 비전 실현 의지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이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될 당 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님들이 현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에 대한 입장과 민주통합당의 비전, 정책을 밝혀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에 대한 답변은 2012년 1월 9일(월) 오전 11시까지 팩스(02-744-7916) 또는 이메일(lgbtstu@gmail.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보도 자료로 배포될 것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실리게 되며, 모바일 및 현장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상 캠페인 및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첨부.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님께 드리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개 질의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기타 개인활동가)